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웃는 얼굴과 경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한다. 편의점 청년도, 설렁탕집 아주머니도, 주유소의 머리 희끗한 초로의 직원도 바빠들 살고 있다.

한데 정말 이상하다. 일하는 이들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열을 만나면 웃는 분들은 한둘에 불과하다. 느닷없이 몰아친 철모르는 한과 때문만은 아닐 거다. 벌써 몇 년째 느끼는 것이고 최근 들어선 더 자주 절감한다. 우리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과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사는 데 그친다면 그 일이 신명날 리 없다. 충분히 먹고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길 때 우리 비로소 웃을 수 있다. 한데,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한다. 2013년에 발표된 동기구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

자 비율은 25.1%로 미국(25.1%)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6524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4.7%에 이른다. 일하는 이들 네 명 중 한 명꼴로 저임금 노동자다. 다른 말로 '워킹푸어'다.

일을 하는데도 삶은 늘 팍팍한 사람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니 외려 늘고 있다. 한데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이 임금을 받는다. 이렇지 않아 우리가 어찌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한계선상에 500만 명이 서있다. 이들의 웃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 그 한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유행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지난해 시동을 걸었고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침내 한국과 함께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걸까?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일 게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저임금 노동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경제는 물론 자본주의 자체가 자칫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오늘의 글로벌 경제는 부채 슈퍼사이클의 끝에 와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저축의 시대에서 부채 소비시대로 급속히 변화했다. 우린 지난 30년 동안 거대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외상으로 소비를 했다.

이는 가계만이 아니다. 기업도 정부도 모든 경제주체가 부채란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성장을 구가해왔다.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점이다. 변제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디스플레이션 시대이다. 디스플레이션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총수요의 감소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빛에 놀러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핵심이 여기에 있다.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려면 임금

상승을 포함한 경제주체의 소득 상승이 필수적이다. 실질임금 인상은 성장의 필수조건이다. 이게 세계 각국이 서둘러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올리는 진짜 이유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소득 주도 성장만이 해법이다. 하나, 그 시행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하다. 이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을 까, 거이 없다. 무작정 강제한다면 고용 여력을 잃어 실업자가 외려 늘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대의 경제 위기는 결국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대중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것, 그것도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금 인상을 통해, 그것만이 불황의 유일한 해법이다.

노동자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것, 그게 해결책이다. <경제평론가>

社說

광주U대회 과제 산더미, 해결 서둘러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U대회) 개막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물론 숙박시설도 확보되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 또 신·중축 경기장은 운영 주체가 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숙박시설도 최소 3601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420실 확보에 그치고 있다. 광주, 전남·북 경기장 인근 숙박시설이 4만2580실에 이르는데 대회 때 한류 보려는 임주들이 사전 예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 중인 양궁장은 보상문제로 공개 해결책이다. <경제평론가>

사가 지연되면서 공정을 63%에 머물러 있다. 일부 경기장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운영을 거부하고 있고, 선수단 이동수단과 주차장 미확보 등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가 그 많은 준비기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국제대회 등 대형이벤트의 성패는 결코 큰 일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작지만 부실한 운영이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인천아시아인게임도 작은 부문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최악의 대회 운영이라는 혹평까지 받았다. 예산 편성, 인력 운용, 대회 진행, 각종 서비스 부족 등 소소한 하점 노출로 국제적 망신을 샀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남은 기간 완벽한 준비를 당부한다.

종자원 직원들이 '종자 도둑장사' 하다니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일부 직원들의 '바리 백대(百態)'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전남 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종자원 직원 5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분류해 빼돌리는가하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뇌물을 챙겨 왔다.

또 말쑥한 종자 선별기기를 고장이라며 팔아넘기고, 작업 인부 수를 부풀려 인건비도 백백하는 등 바리백화점이 나 다를 바 없었다. 종자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할 종자원 직원들이 무려 5년 가까이 공공연히 종자를 도둑질하고, 현재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삶이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고 내가 집중해야 할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일, 이루어질까봐 두려운 일,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으로 가지고 고와 내 삶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우스에서 불일 볼 때 그 순간 집중하듯이 내 삶 순간마다 현재에 집중한다면 뱃속의 근심도 사라지겠지만 마음의 번뇌도 함께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아니다니 황당한 일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허술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빚어낸 해묵은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수년간 종자 도둑장사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업무 단계가 사람의 손을 거쳐 전산 입력되는 방식이고, 직원이 전근 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맡게 돼 항상 리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자원 직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범법 행위는 가장 기초단계에서부터 농정 불신을 가장 심어 왔다.

경찰은 이들 차명 계좌에서 전담을 제외한 6개 지원 공무원 17명의 계좌로 수상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여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농정당국도 품종관리 체계를 과학화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씨앗까지 도둑질해 장사한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종교칼럼

해우소에서 해야 할 일



송우진 원불교 상무대학교장 주임교무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욱더 빠른 전송속도로 늘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은 빠른 성능을 무기로 광고를 내보냅니다. 음식도 차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빨라졌고, 홈쇼핑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사기가 무섭게 우리 앞에 도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도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명의 진화를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첨단 디지털 기기 중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였으나 아직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보급률은 80%를 넘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여유가 없어진 듯 보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학원에, 대학생은 취업준비에, 직장인들은 근무에 자기 개발까지. 더욱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한가로운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보다

는 그 여백의 시간에 정보와 재미를 채워 넣으려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며 그 무엇인가가 없어지면 심한 허전함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저도 그런 모습이더군요. 원불교의 성직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현대문명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 삶에 빈 공간을 짝짝 채운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가는 화장실 그곳에서조차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용변만 보일 않는구나. 용변을 보며 무엇인가를 같이하고 있구나. 이제 이 화장실에서조차 마음을 쉬게 해줄 여유가 사라졌구나. 마음이 늘 쫓겨서 저서 순간마다 내 삶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반성했습니다. 불일을 보며 다른 것을 또 하고 있으니 근심이 제대로 덜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기고

'누리비' 소통력 북한까지 번지길...



신정훈 송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계 대학생의 올림픽인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무대에 오르는 젊은이들은 다르다. 오는 7월 3일부터 12일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시와 전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U대회에서 어느 나라의 어떤 젊은이가 세계에 희망을 전해 줄지 자못 기대가 된다.

특히 반가운 것은 북한이 육상,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총 10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제적으로도 그랬듯이, 수년간 끊기다시피 했던 남북 교류가 광주 U대회를 계기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남북 모두 연초에 대화 의지를 밝힌 터여서 광주 U대회가 최

적의 대화 테이블이 될 수 있다. 광주 U대회의 마스코트 '누리비'는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남북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누리비'를 통해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평화의 도시 광주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기보배, 구본길, 신아람, 남현희, 최민호 선수 같은 올림픽 스타들을 기억한다. 알고 보면 이들 모두가 화려한 올림픽 무대에서 명승부, 명장면을 남기기 전에 이미 U대회의 스타들이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48%가 U대회 메달리스트 출신이다. 이번 광주 U대회의 메달리스트들도 기량을 더욱 더 갈고닦아 훗날 올림픽 무대에서 지구촌을 감동시킬 것이다.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광주 U대회에서 미리 만나보는 것도 큰 기쁨일 것이다.

광주 U대회는 스포츠 선수들만의 잔치는 아니다. 광주의 송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28개 대학교가 공식파트너 대학으로 참여해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세계적

인 스포츠 제전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다. 광주 U대회도 마찬가지여서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무려 12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1, 2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선발과정이 시작돼 교육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3월 10일경 합격 통보를 받는 자원봉사자들은 7월의 봉사를 통해 멋진 추억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U대회가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만의 축제에 그친다면 뭔가 아쉬울 것이다. 스포츠는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의 도전에 감동받은 관중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있어야 완성된다. 이제 100여일 후, 7월 광주 U대회의 깃발 아래 170개국 2만여 명의 선수 및 임원진이 총 21종목에서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찾으려 한다. 우리는 감동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아파트 우편함, 개인정보 노출 위험 주의해야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은 많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의식이 없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편물에는 개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거래 은행 등 많은 정보가 적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정

보가 훑돌이 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우편함에도 CCTV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고지서는 인터넷 청구서로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것이다. 또 주소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범죄피해는 방지하는 순간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최경환·광주시 서구 치평동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062-227-9600 라디오는 내 친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